

공익 갤러리

연관 갤러리(1/4) | [갤주소](#) [복](#)
[최근 방문 갤러리](#)
[공익](#)
[연세대](#)
[포켓몬 GO](#)
[공무원](#)
[이전3 리그 오브 레...](#)
[수능](#)

유튜버(기자왕 김기자)의 마스크 공익과 인터뷰 대화 전문정리 1편

[▷\(1.249\)](#)
2020.01.29 15:24:59
(행사가)이지넷
프리미엄 안전문
모음전가성비甲 강아지패드
애견패드모음 200
매 벨버드 요요쉬
강아지패드 아몬

마스크 공익 인터뷰했습니다. 직접 갑질논란 폴스토리 털어 ...


<https://youtu.be/jAZPvFZG14A>

기자왕 김기자 : 약칭) 기자, 피해 사회복무요원 : 마공

<대화 전문>

기자 : 비가 주룩주룩 오네요. 저는 오늘 연수구에서 일어났던 사회복무요원이 마스크를 나눠주다 일종의 갑질원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오늘은 실시간 검색어 3위까지 올라갔던 마스크 공익으로 불리는 인천 모 동사무소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장을 소분하다가 결국 이게 일이 커지면서 실시간 검색어까지 올랐던 사회복무요원을 인터뷰 해보겠습니다.

마공 : 네 안녕하세요. 마스크 공익입니다.

기자 : 효청은 마음에 드시나요?

마공 : 현재로선 모든 걸 포기하고 즐기고 있습니다. 별명도 이제 마스크 공익이 되어버려서 친구들 사이에서. 니까?

무료로 경찰패스 15일간 들
수 있다?

1위 해커스
경찰공무원 유료 전강좌
전원 무료제공!



지금 바로 무료로 받기 >

*해커스는 2019.08.14(월)부터 2020.01.29(수)까지 15일간 무료제공합니다.



저를 호칭할 때 마스크 공익이라고 해도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일단 2018년 6월에 현역병으로 입대했었습니다. 8개월 정도를 현역으로 있다가 군 생활 도중에 허리가 너무 안 좋아져서 다른 부위를 수술하는데 허리도 같이 MRI를 군병원에서 찍게 됐는데 "허리디스크가 터졌다 군생활 중에" 판정을 받아 현역 부적합 심사를 통해 공익으로 배정 받아서 오게 되었습니다.

기자: 어떤 일 하시다가 허리가 나가게 되었나요?

마공: 군대에서 삽질도 하고 창고 정리 같은 걸 하다 보면은 거의 100kg이 넘는 물건을 2~3명에서 나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허리가 안 좋아지더니 군 생활내내 오래 서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근무 시간에 허리가 너무 아파서 다리가 안 움직여지더라고요. 마비가 되서, 심각성을 느끼고 병원 가서 검사를 해 보니 "디스크가 터져서 신경 압박이 이뤄지고 있다. 군생활 지속하기는 어려울 거 같다" 그렇게 해서 공익으로 전환 되었습니다. 현역에서 공익으로 가기 전에 적체 인원 때문에 5개월 정도를 대기를 하다가 운 좋게 자리가 나서, 운이 좋은 건 아니죠. 5개월 동안 대기했으니까. 시간을 날리고 공익으로 그 때 소집이 되었습니다.

기자: 처음 동사무소 생활은 어땠나요?

마공: 처음에는 다들 딱히 트러블이 없었고 그 때 당시에는 인원수도 8명밖에 안 된 작은 동사무소였는데 3달 전쯤부터 신규 공무원분들 8명 정도가 다시 오더니 그 사이에 새로 오신 분들하고 트러블이 생겨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기자 : 기존에 8명이 있는 동사무소에 추가로 8명이 더 왔다고요?

마공 : 네 .

기자 : 예를 들면 10명 있는 조직에 신입사원을 뽑을 때 1~2명인데 묻고 더불로 갔네요?

마공: 네. 8명 이상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복지팀만 4명이고 행정팀에는 더 많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수가 늘어서 8명이 하던 일을 16명이 하다 보니까 업무가 그렇게 바빠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여유시간도 갖고 근무 시간에 핸드폰을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쇼핑몰도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업무가 이제 많지 않다 보니까.

기자 : 그렇게 새로운 분들이 와서 어떻게 트러블이 생기게 되었나요?

마공: 글을 올리신 분이 계시죠. 지금 마스크 공익을 저격하는 글을 맨 처음에 올리신 분. '시보 공무원'. 그 분과 트러블이 생겨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사건의 발단은 약 3주 전부터 시작합니다.

기자 : 사건 발생은 (2019년) 12월 19일 입니다.

마공: 12월 19일 기준으로 한 2주 전쯤부터 사건이 발단이 된 거죠. 마스크 분류 작업을 그 때 처음 시작했으니. 처음에는 마스크를 시청에서 미세먼지 대책으로 "마스크를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나눠줘라" 이런 식으로 상자가 3백 몇 박스가 왔습니다. 이거를 같이 옮기기는 했습니다 그분들이랑. 그때까지는 제 업무가 아니었으니까. 저한테 부탁도 안 했으니까. 같이 옮기고 나서 3백 몇 박스에 30600장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거를 저한테 "30개씩 소분을 해서 박스에 다시 넣어라" 라고 자랑 트러를 있으셨던 분(시보 공무원)이 저한테 부탁을 하셨죠. 저 혼자서 30개씩 소분하는 걸 했습니다. 2주동안. 그 분은 이제 시간을 정해준 적 없다 말씀하시는데 저의 담당자분께서 저에게 "다음주까지 하루에 10%씩 하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저에게 다음주까지 하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촉박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말차 나온 친구까지 불러서 "도와달라... 나 너무 힘들다. 점심, 저녁밥, 영화, 팝콘까지 사줄테니까 좀 도와달라" 해가지고 친구까지 불러서 일을 처리했습니다.

기자 : 그렇게 처리했는데 왜 트러블이 생겼죠?

마공: 그 후에 마스크를 소분하고 박스에 담는 과정까지 끝난 다음에 그 분이 다시 큰 봉투를 몇 상자 사오더니 저한테 "이 봉투 안에 소분한 것을 다시 꺼내서 넣어라" 제 입장에서 그런 거죠. 처음부터 통장마다 분류를 시키셨으면 상자에 집어 넣을 이유도 없고 한번에 바로 일을 끝낼 수 있으니까. 제 입장에서 그 때 화가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그랬습니다. "이 30600장이... 사람으로서 혼자 하고 제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오차가 생길 수 밖에 없다. 오차가 생기는 건 내가 이 일의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은 못 지겠다"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니까 그 분이 화가 나신 겁니다.

기자: 그 책임자는 누구신가요?

마공: 그분(시보공무원)이십니다.

기자 : 근데 좀 한가하다고 하셨잖아요 분위기가. 그럼 좀 도와달라 할 수도 있잖아요?

마공 : 제가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 분은...

기자 : 아 도와달라고 했는데?

마공: 네. 제가 했습니다. 저한테 혼자 시키길래 "이거 같이 해주시면 안되나요?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이렇게 막하니 그 분이 이제 눈앞으로 받아들이셨는지 웃으면서 "열심히 하세요 ^^" 하고 가시길래 저 혼자 처리하게 됐습니다.

기자 : 어쨌건 그 분에게 도와달라고 했지만 거절 당하고 오히려 사비까지 털어서 친구를 데려와 일을 끝냈습니
이걸 넣었다가 또 다시 빼서 소분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 담당도 아니고 약간 오차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마공 : 그렇죠. 그분은 저한테 부탁을 했는데 그 부탁을 함으로서 그 업무의 소관이 저한테 넘어갔다 오차가 생
갈아서

기자: 마스크 공익님의 원래 업무는 무엇인가요?

마공: 업무라고 하면... 공무원 보조 업무라고밖에 설명을 못 드리는데 마스크 분류 작업도 공무원 보조 업무
시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이 업무는 제 업무도 아닌데 왜 시켰냐?" 이렇게 하지는 않았고 저는 그거에

무료로 경찰패스 15일간 들
수 있다?

1위·해커스
경찰공무원 유료 전강좌
전원 무료제공!

스본은
100%
스톡!

지금 바로 무료로 받기 >

*패스는 1년 30시간(평일 10시간/주)을 제공하며 1회기 수강료에 대한 반납



해 명예훼손적 글을 게시하셨고 저는 그걸로 인해 인격모독을 당했으니까 그거에 대해 문제를 삼는 거지 마스크 분류 작업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 화가 나서가지고 저를 담당하시는 공무원분께 저를 약간 타박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렸던 모양입니다. 저를 담당하시는 공무원분께서 저를 속직실로 불러 "너 7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 저를 타박해주셨는데 그 속직실 옆이 탕비실인데 탕비실에서 (시보공무원이) 저에 대한 뒷담화를 크게 하시는 겁니다.

기자 : 혼자서요?

마공 : 아뇨, 다른 공무원들께. 방음이 안 되다 보니 제 귀로 다 흘러 들어왔고 그거에 대해 저는 화가 많이 난 상태라서 저를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도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하며 "에이 아니겠지.." 그런식으로 말하셨는데 결국은 제 말이 맞았구요. 그래서 제 담당자분이 그 분에게 주의를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 사이에 점심시간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 분이 네이트판에 저에 대한 악의적인 글을 올리신 거죠. 저는 상황을 몰랐어요 그 때는, 점심시간 끝나고 와 보니 그분이 주의를 들었으니까 저에게 나름 사과 같은 걸 하려고 오시더라고요. 듣는데 제가 먼저 그랬죠. "남의 뒷담화를 할 때는 앞으로 주의를 잘 살피고 해라" 그러니 그 분은 "너 뒷담화한 거 일부러 너 들으라고 한 거다. 큰 소리로 해서 너가 듣고 느끼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현역 군인들은 동원 훈련을 나가는데 너는 따뜻한 곳에 있지 않느냐?" 그런식으로 저를 비교하시더라고요. 저도 현역에서 있다가 온 몸인데 그런 취급을 받으니까 어이도 없었고 화가 많이 났었죠. 사과 아닌 사과로 인해 서로 분위기는 더 안 좋아졌죠.

기자 : 근데 그 글을 확인하시는 건 언제예요?

마공 : 그 글을 확인한 건 (그 주)일요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19일에 그분이 저에 대해 악의적인 글을 인터넷에 올리셨고 저는 그 글을 12월 23일에 확인하고 반박문을 썼습니다.

기자 : 어떻게 확인하게 되셨나요? 그 글이 좀 화제가 됐나요?

마공 : 네. 네이트판과 네이트판 베스트 게시물에도 올라 갔고 그리고 펌코, 웃대, 루리웹, 디시인사이드 같은 커뮤니티에 급속도로 퍼져서 제 친구가 (디시) 국내야구갤러리에서 그 글을 보게 돼서 저에게 카톡으로 알려줬습니다. "이거 니 이야기 아니냐? 니 이야기 같은데 한 번 읽어봐라" 해서 읽었더니 제 이야기가 맞는 거예요.

기자 : 맨 처음에 그 자격글만 올라 왔을 때는 반응이 어땠나요?

마공 : 저에 대한 욕 70%, 그분에 대한 욕 30% 정도가 있었는데 댓글이 수 천개 정도 달렸었는데 보통은 제 욕을 많이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화를 참지 못하고 해명문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기자 : 그렇게 해서 작성한 해명문의 내용은 어떤 거였나요?

마공 : "내가 본인이다. 이 글은 너무 자기에게 유리하게 썼다." 이 사건에는 그분이 공익은 사사로운 일만 한다고 쓰셨는데 마스크 30600장 분류가 혼자서 하기에는 쉬운 일은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평소에 저의 근무 태도가 너무 안 좋았다. 근무 태만했다 그런 식으로 올리셨길래 저도 이에 대해 반박문을 쓰게 된 거죠.

기자 : 그 분이 30600장 분류하는 걸 사사로운 일이라고 하셨는데 사사로운 일이라고 치죠. 그 사사로운 일을 하는 동안 그분은 뭘 하셨나요?

마공 : 그분은 나름 그분의 업무를 하셨을텐데요. 그 시기에는 제가 더 바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자 : 그렇게 해서 오히려 역풍이 불어서 그분에 대한 비판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그 때 동사무소 내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마공 : 제가 그분의 글을 보고 출근을 먼저 빨리 해가지고 프린트해서 그 글을 팀장과 제 담당자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제 해명문도 보여줬습니다. "일이 커졌다. 인터넷에서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다" 팀장님은 솔직히 저보다는 그분을 더 타박했어요. "왜 이런 걸 올렸냐? 공무원 품위 유지에 걸린다. 지워라. 삭제해라"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저에게 사과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분(시보 공무원)은 그 상황을 잘 모르고 계셨던지 사과를 하고 사과문을 적으시는데 사과문을 너무 성의 없게 적었다는 평을 들을 정도로 적으셔가지고 오히려 불이 타게 된 겁니다. 오히려 그 사과문 때문에 사람들이 더 화가 나서 근무지를 찾으려고 했죠.

기자 : 그럼 현실에서는 제대로 사과를 했나요?

마공 : 그것도 제가 녹음을 했는데요. 변명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니 행동에 대해 내가 무엇때문에 화가 났는지" 그 부분에 대해 계속 언급을 하시면서 "자기는 위로 받고 싶었다" 이런 식으로 "너의 행동, 태도에 문제가 있어서 화가 났었다 그래서 글을 올렸다 미안하다." 이렇게 하셨는데 솔직히 저는 제대로 된 사과로 생각하지 않고 있어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반응이 계속 안 좋길래 그분이 사과문을 지우셨죠. 지우고 나서 퇴근하기 한 30분 전에 어떤 분이 "나 여기 어딘지 안다. XX 여기 아니냐?" 하고서 구글링을 통해 찾아낸 사진과 대조해서 근무지 위치를 알아내셨죠. 사람들이 민원 전화를 엄청 많이 했죠.

기자 : 퇴근시간 30분 전예요?

마공 : 네. 공무원으로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분은 "여기 우리 동사무소가 맞다" 이런 식으로 인정을 하고 "그러면 복이 바뀔까라 공인 바뀔까라" 이런 식으로 요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민원인은 저를 바꿔달라 하시더니 "너 왜 그런 쓰레기 이런 쓰레기 사이트 하는 걸 아냐? 친구가 아냐? 직장 동료야 아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인신공격 같은 걸 그(원)분을 바꿔달라 하더니 :성 차별적인 발언 당하는 거 아냐?" 하면서 종이에 적게 시키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되게 답답한 게 이게 인간 대 인간의 문제지 저는 남자 대 여자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지 않거든요. 설령 누굴 하다고 글을 올렸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걸 성대결 구도로 몰고 가서 안타깝습니다.

기자 : 그렇게 해서 사건이 커졌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었나요?

마공 : 그 일이 크리스마스랑 겹쳐가지고 하루 동안은 크리스마스 연휴니까 잠잠해질 줄 알았죠. 오히려 그분! 도 더 많이 날으시고 전화도 더 많이 날으시고 시청, 구청 의원분들께도 연락을 해가지고 출동을 하게 만드셨

기자 : 그래서 그 때 실제로 시의원이 왔었나요?

무료로 경찰패스 15일간 들 수 있다?

1위*해커스
경찰공무원 유료 전강좌
전원 무료제공!

스승의날
10.0%
스택!

지금 바로 무료로 받기 >

*해커스 1위 30대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11위 12위 13위 14위 15위 16위 17위 18위 19위 20위 21위 22위 23위 24위 25위 26위 27위 28위 29위 30위 31위 32위 33위 34위 35위 36위 37위 38위 39위 40위 41위 42위 43위 44위 45위 46위 47위 48위 49위 50위 51위 52위 53위 54위 55위 56위 57위 58위 59위 60위 61위 62위 63위 64위 65위 66위 67위 68위 69위 70위 71위 72위 73위 74위 75위 76위 77위 78위 79위 80위 81위 82위 83위 84위 85위 86위 87위 88위 89위 90위 91위 92위 93위 94위 95위 96위 97위 98위 99위 100위

있다

없다

마공 : 네 의원님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면담하시고 가셨습니다.

기자 : 그 때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마공 : 저는 따로 얘기를 안 하셨습니다. 제가 나중에 따로 전화드리기는 했는데 그 때는 자랑 마주치지는 못했구요. 동장님과 면담하고 가셨습니다. 그 이후에 그 분(시보 공무원)이 크리스마스 당일에 2차 사과문을 올렸어요. 근데 2차 사과문 마지막 부분에 "성차별적 발언은 자제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사과문을 올리셔서 오히려 이게 성대결 구도로 가가지고 일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기자 : 그런 구도로 가는 건 마스크 공익남도 좀 ..

마공 : 저는 안타까웠어요 너무. 성차별로 갈 이유가 없는데도 성차별로 몰고 가니까 많이 화가 났었죠 그 때는. 그 다음에 근무지를 갔는데 눈치가 많이 보이죠. 거기서 저 때문에 많은 민원 전화에 시달리고 계시니까. 구청에서 저한테 "너 그러면 구청으로 출근해라" 그래서 제가 구청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기자 : 그 뒤에 동사무소에서 따로 피해를 받거나 그런 건 없었나요?

마공 : 그분들이 찾아 오시거나 민원 전화를 많이 받거나 정보공개 청구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동사무소가 바빠지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 외로 따로 피해를 받거나 그러신 분은 없습니다.

기자 : 자격글을 올리신 그분(시보 공무원)도 딱히 큰 피해를 받지는 않았고요?

마공 : 그분이 악플을 많이 받으셨죠. 그분도 힘들다고 하시는데 그분이 먼저 올리셨으니까... 저도 첫날에는 많이 힘들었거든요. 저에 대한 악플이 많아서. 그 후에 제가 28일날 국외 여행을 갑니다. "너 왜 이 시국에 국외 여행을 가냐?" 일본 간 거 아닙니다. 왜 국외 여행을 가냐 이러시는데 이미 한 달 전에 예약을 했고 신고도 다 한 상태라서 제가 취소를 하려 했더니 구청 공무원분들이 "너 차라리 머리 식히고 와라 가서. 취소하지 말고 조용해질 때까지 해외에 있어라." 그러시길래 취소 안하고 친구들하고 여행을 갔습니다.

기자 : 여행은 좀 즐겼나요?

마공 : 못 즐겼습니다. 처음 이틀은 즐겼는데.... 31일날 또 일이 하나 벌어지게 되죠.

30 👤 0			0
hit	공유	신고	

다사랑중앙병원

환자의 눈으로, 가족의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알콜중독전문치료 다사랑중앙병원

2004년 개원, 양한방 협진, 남성/여성/노인병동, 100% 알코올중독 입원 병상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전체 리플 2개 등록순

↳ (123.215)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gongik_new&no=1583737

↳ (123.215)	2편
-------------	----

1

0

.....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다시쓰기

전체글

개념글

무료로 경찰패스 15일간 들 수 있다?

1위*해커스 경찰공무원 유료 전강좌 **전원 무료제공!**

소문난 100% 스텝!

지금 바로 무료로 받기 >

있다

없다